



한·중·일 세 나라의 불황탈출과 저작권 역조 해법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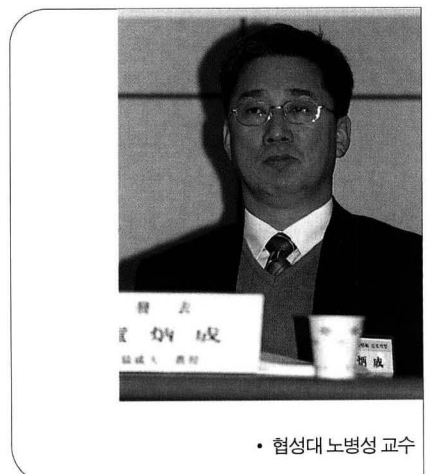
한·중·일 세 나라의 출판계가 공통으로 떠안고 있는 문제는 저작권 무역역조현상이다. • 중국의 경우 WTO 가입 이후 출판시장에 저작권 계약이 급증하면서 해외도서 번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일본 역시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도 성장세를 지속해 오던 출판시장이 1997년 이후 잡지시장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한·중·일 세 나라는 고질적인 무역역조현상을 해결하고 세계출판계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유교·한자 문화권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각국의 고유한 장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한국출판학회(회장 이종국)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출판의 해외진출과 출판발전'이라는 주제로 한·중·일 출판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건국대학교 언론학과 김동규 교수는 '글로벌 출판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출판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외시장 진출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진출 또한 개별 기업적 차원에서 한류열풍에 편승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며 동북아 시장 진출은 내수시장 중심의 한국 출판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그 가능성에 대해 "동북아 지역은 중화권, 일본, 한국 등을 아우르면 인구 19억의 거대시장이 된다"며 "이들 지역은 지역적,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소위 '문화적 할인율'이 낮아 다른 지역에 비해 시장 진출이 쉽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상호협력 방향으로 각국의 역할에 대해 일본은 자본과 기술력, 기획과 마케팅 등 시스템 경쟁력, 한국은 시장 역동성과 고급인력, 디지털 영역의 콘텐츠 생산능력과 기술, 중국은 잠재적 시장규모,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서 기인한 풍부한 콘텐츠 원천, 풍부한 인력 등 이미 제시된 바 있는 3국 문화산업 협력방안을 출판분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민간차원의 실질적인 공동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성대학교 광고홍보컨텐츠학과 노병성 교수는 한국출판의 해외진출에 있어 언



• 협성대 노병성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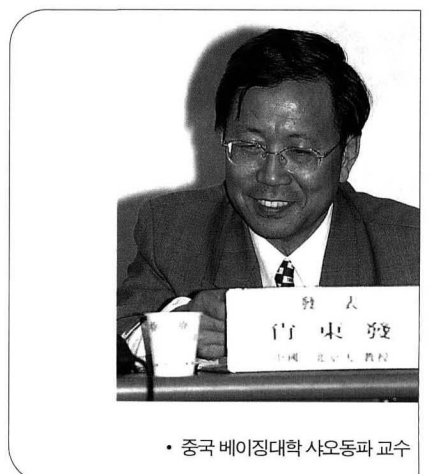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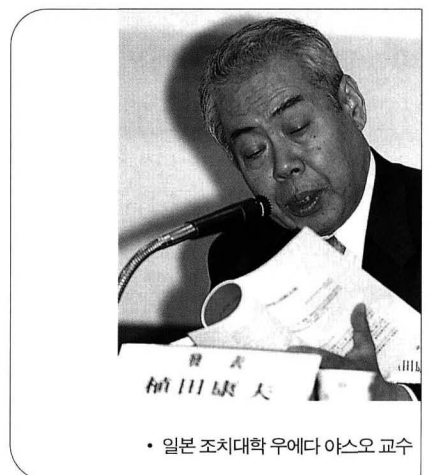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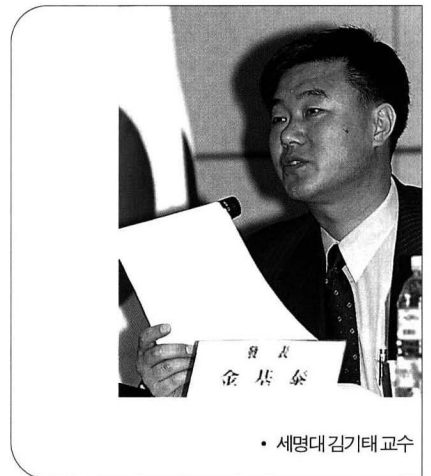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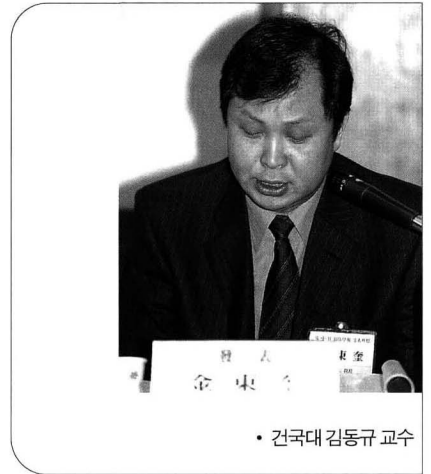
어장벽, 지식생산능력 부족, 사업지원 서비스 인프라 및 전문출판 비즈니스 인력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되지만, ▶출판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 증대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진출로 해외시장 개척 디딤돌 형성 ▶정부의 관심 및 정책적 배려 증대 ▶강력한 문화 원형질 ▶디지털 인프라 ▶창의적 작가 증대 등이 강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해 “우리 출판산업 중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르를 글로벌 차원에서 기획하고 생산하여 e-book 및 인터넷 서점 개발, 도서관 시장 활용,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스페인어 콘텐츠 개발 등 미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세계시장 전체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김기태 교수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 참여로 인한 일본의 성과를 예로 들며 “한국은 ‘일본의 해’에 비해 인터넷 등 첨단매체를 활용하여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세계 수준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이 세계를 상대로 한 정보 발신지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출판계의 대표로 발제에 나선 조치대학 신문학과 우에다 야스오(일본출판학회 회장) 교수는 ‘일본의 출판현상과 국제교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황이 길어지면서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독서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1997년 이후 서적잡지를 포함한 출판물의 판매금액이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일본 출판산업의 현황을 소개했다. 하지만 우에다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로틴low teen 패션지, 고령자 대상 출판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출판활동을 실현시키고 동시에 2001년 12월에 시행된 ‘어린이의 독서운동 추진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독서운동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출판문화국제교류회를 중심으로 해외 도서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일본출판계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번역출판의 수입초과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대학 편집출판학과 샤오동파 교수는 ‘중국의 저작권무역과 합작출판’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WTO 가입 이후 저작권무역의 규모와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중국과 외국의 출판사들간 합작방식도 최초의 판권 수출입 방식으로부터 저작권출판의 단계로 발전해 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난 성과에 비해 ▶무역적자 증가 ▶중문도서의 국제시장 개척 미비 ▶주제선택과 수입과정의 맹목성 ▶무단복제 등 저작권 보호의식 부족 ▶저작권무역 인재 결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출판의 국내발전과 국제교류’를 주제 발표한 칭화대학 편집출판학과 선환야오 주임교수는 자금력 부족으로 51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중국측이 보유하기로 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1997년 현재 총자산 1,250만 달러 중 겨우 10퍼센트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는 독일 베텔스만과의 합자회사를 예로 들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적 조치로 ‘출판집단’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설립된 신화발행집단총공사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유관정신에 따라 중국출판집단 산하 신화서점총점, 중국출판대외무역총공사, 중국도서수출입총공사와 국가우편국 산하 중국우편물류유한책임공사들이 공동발기한 회사로 자국 도서시장에서 출판물도매, 수출입과 물류배송 및 통신구매 인터넷 등 각종 업무방면에 걸쳐 중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출판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중국 출판시장에서 강세를 형성하여 WTO가입 이후 각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국내의 자본압력과 맞상대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환야오 교수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한국은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의 중의 하나”라면서 “중국보다 5년 앞서 WTO에 가입한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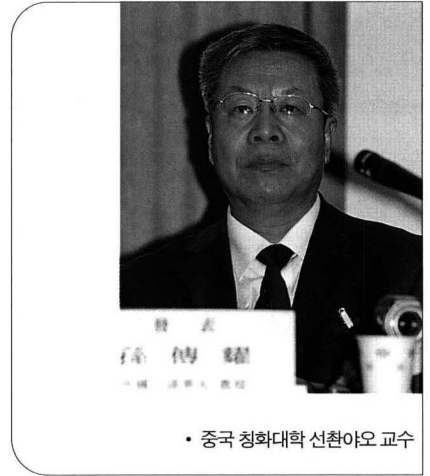


협과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진대 권호 교수, 한국출판협동조합 김종수 이사장, 김포대 남석순 교수,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선임연구원, 서울셀렉션 오양순 저작권 팀장, 신구대 이창경 교수, 서강대 조맹기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세 나라 출판계가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각 나라는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처한 입장에 따라 대응 방식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인 강점을 내세우며 동북아의 출판 중심국으로의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일본은 자국출판의 한계를 절감하고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된 한국출판의 가능성과 역동성을 주목하며 한국이 동북아 협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중국은 WTO가입 이후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자국출판계의 혼란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중국은 대규모 출판집단을 다양하게 설립함으로써 해외 개방에 노출된 출판경쟁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입장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일 세 나라가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든 자리로 평가된다. [한글]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 중국 청화대학 선천야오 교수

● 불황타개를 위한 일본의 노력

일본은 로틴low teen 패션지와 고령자 대상 출판 그리고 '어린이의 독서운동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을 통해 출판계에 불어 닥친 불황을 타개하고 있다.

로틴 패션지는 9~14세 정도를 대상으로 옷과 액세서리, 화장 등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는 잡지. <피치레몬> <니코라> <캔디> <러브베리> <메론> <푸치버스테이> 등 6개 잡지가 있으며 전년대비 50.4퍼센트 증가, 매월 총 발행부수가 100만 부에 달한다.

소녀들의 자아의식이 향상되면서 독자적인 패션관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의 부모 역시 패션지에 익숙한 세대로 자녀의 패션 센스나 치장에 이해가 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지출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로틴 패션지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고령자출판이 활발하다. 2002년 히노하라 시게아키의 《능숙한 삶의 방식》이 120만 부 팔렸다. 이 책은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에세이로 특히 저자가 90세가 되어서도 아직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독서운동도 활발하다. 2002년 '어린이의 독서운동 추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이후 치바현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아침독서' 운동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퍼져 현재 1만 개 학교가 실시

하고 있다. 0세 김진에 참가한 모든 유아와 보호자에게 그림책을 선물하는 '북스타트' 운동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 비영리 기관)의 지원센터가 생겨 2002년 9월 현재 297개 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 중국의 저작권 무역 현황

샤오동파 교수는 중국의 저작권 무역의 경우 194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략 2만여 종의 도서를 수입하고 5,000여 종이 수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량이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50퍼센트 가량 증가하였고 10년 사이에 저작권 수입은 6,860여 종으로 1,420퍼센트 증가한 셈이다.

중국의 주요 저작권 수입국으로는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며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의 수입이 40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중국 역시 과학기술, 경제경영, 학술형 서적이 주요 수입도서다. 2002년 중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저작권 무역은 1,304종이고 그 중에서 수입이 1,183종으로 90.72퍼센트, 수출이 121종으로 9.28퍼센트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일본은 총 926종으로 저작권 수입이 908종(98.06퍼센트), 수출은 18종(1.94퍼센트)을 차지했다. 한국은 총 378종으로 저작권 수입은 275종(72.75퍼센트) 차지했고 수출은 103종(27.25퍼센트)을 차지했다.